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6, Vol. 35, No. 2, 453-472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Mediating Effect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Hwang Youn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primary psychopath and secondary psychopath, which produce transgressions,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 suggesting that primary psychopath and secondary psychopath are different disorders. Regarding a hypothesized model, this research uses the path model, where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work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In addition, this research examines model fit of the hypothesized model and identifi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them. This research uses the 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the Korean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for Adults, moral emotions scenario scale,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scale for 647 students. In addition, mediating effects were examin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Regarding primary psychopathic traits, direct effects resulting in unethical decision making and indirect effects for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were identified. Regarding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indirect effects fully meditated by moral disengagement were identifi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Keywords: primary psychopathy, secondary psychopathy, morality, unethical decision making, moral emotions, moral disengagement

---

* This paper includes part of the Ph. D thesis (Youn, 201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14.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Korea
Tel: 02-2164-4276, Fax: 02-2164-4252, E-mail: yhlee@catholic.ac.kr

www.kci.go.kr

Greene(2007)이 제안한 도덕판단의 이중과정 이론(dual process model of moral judgement)에서는 정서적 기제와 인지적 기제 간의 경쟁관계를 통해 도덕판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윤리적 갈등상황은 대개 불쾌한 정서를 자극하게 되는데, 정서경험과 행위결과에 대한 인지적 평가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도덕판단이 결정된다는 것이다(Koven, 2011). 이는 개인적 이익과 사회규범이 충돌하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규범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것이라 판단될 때는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한다. 행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 정서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병질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쉽게 비윤리적 행동을 선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질과 비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에 어떠한 정서적, 인지적 과정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행동의 결과로서 예상되는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질자들이 어떻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2차성 정신병질

정신병질자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가능하고 온전한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규범을 쉽게 위반하고 타인을 속이며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Ermer & Kiehl, 2010; Park, Hyun, & You, 2010). 이러한 특성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e, 1993).

Hare(1993)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신경생리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정신병질을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한다. 그들에 따르면, 1차성 정신병질은 비정서성·낮은 특질불안 수준·저조한 행동억제체계(BIS: Behavioral Inhibition System)와 관련이 있는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은 정서적 과민성·높은 특질불안 수준·과도한 행동활성화체계(BAS: Behavioral Activation System)와 관련된다(Falkenbach, Poythress, & Creevy, 2008; Hundt, Kimbrel, Mitchell, & Nelson-Gray, 2008; McHoskey, Worzel, & Szyarto, 1998).

한편, Lykken(1995)은 두 정신병질이 이질적인 장애이면서도 반사회성을 공유하는 이유를 처벌단서에 대한 회피학습 기제로 설명한다. 즉, 1차성 정신병질은 불안을 적게 경험하므로 처벌단서가 주어졌을 때도 보상추구 행동을 억제하지 않으나, 2차성 정신병질은 특유의 충동성으로 인해 처벌단서에 대한 불안을 고통스럽게 경험하면서도 보상추구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이다(Kosson & Newman, 1995).

성격특성의 차이로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을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Hare(1991)와 Wink(1991)는 1차성 정신병질의 피상적인 정서경험, 대담하고 기만적인 모습과 외현적 자기애 간에 상당한 중첩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차성 정신병질의 충동성·불안·공격적인 반응이 경계선 성격특성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는데(Kernberg, 1975; Meloy, 1988; Meloy & Gacono, 1993), 이와 관련하여 Blackburn(1996)은 2차성 정신병질자 대다수가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정신병질 측정도구들과 기타 성격 측정도구들 간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지지된다. 예를 들어,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Morey,

www.kci.go.kr

1991)의 경계선 특성 척도와 정신병질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Hare, 1993)의 요인 2(2차성 정신병질을 반영) 간에는 강력한 상관이 존재하나, 요인 1(1차성 정신병질을 반영)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Edens, Buffington-Vollum, Colwell, Johnson, & Johnson, 2002). 또한,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 & Hall, 1979)가 반영하는 외현적 자기애 특성과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척도(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 Levenson, Kiehl, & Fitzpatrick, 1995)의 1차성 정신병질 요인 간에도 높은 상관을 확인할 수 있으나, 2차성 정신병질 요인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보고가 있다(McHoskey et al., 1998).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의 각기 다른 정서적 특성 및 성격특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차이로 이어진다. 1차성 정신병질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정서적 각성을 동반하지 않는 대담하고 계획된 것들로서, 주로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2차성 정신병질자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불쾌한 사회적 자극에 따른 과도한 정서경험의 결과로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성격을 띤다(Hicks, Markon, Patrick, Krueger, & Newman, 2004).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는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 및 안녕과 관련된 정서로(Haidt, 2003),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도록 인간을 동기화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서들과는 구별된다(Kroll & Egan, 2004). Tangney, Stuewig과 Mashek(2007)은 도덕적 정서를 방향성을 반영하는 초점과 긍정·부정의 의미적 요소를 반영하는 유의성(valence)을 중심으로 Table 1과 같이 4개로 범주화하였다. 이중 자기지향의 부정정서인 수치심·죄책감·당혹감(이하, 도덕적 정서)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한다(Kim, 2013). 즉, 도덕적 정서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기처벌로 기능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 하게 된다(Tangney et al., 2007).

Table 1
Classification of Moral Emotions

	Positive	Negative
Self	moral pride	shame guilt embarrassment
Other	empathy sympathy gratitude elevation	contempt anger disgust

수치심과 죄책감은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치심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자신에게 향하는 반면, 죄책감은 특정 행동에 맞춰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Jeon & Hyun, 2003; Ryu & Min, 2002; Shim & Lee, 2000). 행동에 작용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수치심은 회피·은폐·취소하고 싶은 동기를 자극한다. 반면, 죄책감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고백과 사과, 문제를 교정하고 싶은 동기를 자극한다(Tangney & Dearing, 2002). 이 밖에, 당혹감은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굴욕·황당함·유감을 피하고자 하는 정서 상

www.kci.go.kr

태로 정의된다(Miller, 1996). 당혹감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수용받기 위해 주로 순응하고 비위를 맞추려 하며, 규칙이나 도덕적 기준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Tangney et al., 2007).

도덕적 이탈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저마다의 도덕적 기준과 자기조절기제에 의해 통제된다고 설명한다(Bandura, Barbaranelli, Caparara, & Pastorelli, 1996). 자기조절기제는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자기 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의 결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때 그에 따른 자기반응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기가치감이라는 긍정적인 보상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자기처벌을 피하고자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Bandura(1999)는 자기조절기제가 비활성화될 때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자기조절기제의 비활성화에 작용하는 요소로 도덕적 이탈(moral disengagement)을 제안하였다. 도덕적 이탈은 개인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을 때, 이에 따른 자기처벌을 피하고자 스스로의 행동을 재해석하는 인지적 왜곡과정이다(Bandura et al., 1996). 도덕적 이탈은 모두 8개의 기제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행위 주체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 행동으로 인해 파급되는 '위해한 효과', 행동의 피해 당사자인 '희생자' 등 3가지 요인에 작용한다(Stevens, Deuling, & Armenakis 2012).

비난받을 만한 행동에 작용하는 도덕적 이탈 기제에는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명명, 장점 비교가 포함된다. 도덕적 정당화는 비난받을 만한 개인의 행동이 인지적 왜곡을 통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완곡한 명명은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이 덜 비난받거나, 심지어 자비로운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립적 언어로 포장되는 것을 말한다. 장점비교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보다 더 비난 받을 만한 행동과 비교됨으로써 수용 가능한 행동으로 정당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해한 효과에 작용하는 도덕적 이탈 기제에는 책임전가, 책임감 분산, 결과의 왜곡·무시가 포함된다. 책임전가는 비윤리적 행동의 책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지 않고 사회적 억압이나 권위자의 독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책임감 분산은 비윤리적 행동의 책임을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결과의 왜곡·무시는 개인의 비윤리적 행동이 갖는 위해한 효과에 대해 직면하기를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희생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도덕적 이탈 기제는 비인간화와 비난의 귀인을 포함한다. 비인간화는 피해자가 갖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폄하함으로써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Struch & Schwartz, 1989). 비난의 귀인은 고문기술자가 고문 당할 만한 이유를 테러리스트에게 귀인하는 것처럼,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Detert, Treviño, & Sweitzer, 2008).

도덕적 인지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관심은 전통적으로 도덕추론 능력과 도덕적 지식에 집중되어 왔다(Koenigs, Kruepke, Zeier, & Newman, 2012). 그러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하여 이러한 도덕적 인지의 개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ney, 1991). 오히려,

www.kci.go.kr

품행장애 청소년이나 정신병질자들의 도덕추론 능력이 일반인들보다 우수하다는 증거가 있다(Gini, Pozzoli, & Hauser, 2011; Link, Scherer, & Byrne, 1977). 반면, 도덕적 이탈과 비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명확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품행장애 청소년 및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도덕적 이탈이 정신병질 특성 외에도, 공격성, 규칙위반 행동 등 다양한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Detert et al., 2008; Hyde, Shaw, & Moilanen, 2010; Stevens et al.,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도덕적 이탈이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하는 도덕적 인지의 개인차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신병질과 비윤리적 행동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Stevens et al., 2012). 또한 Gini, Pozzoli와 Bussey(2015)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구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은 도덕적 이탈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도구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이 각각 1, 2차성 정신병질의 비윤리적 행동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Hicks et al., 2004), 두 정신병질의 비윤리적 행동에 도덕적 이탈이 관여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나, 아직까지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Stevens et al., 2012).

비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은 조직사회 내에서 개인의 윤리적 행동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영윤리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으로(Reynolds, 2006),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법적·도덕적으로 수용가능한 의사결정으로 정의된다(Jones, 1991). 경영윤리학자들은 Kohlberg(1969)와 Rest(1986)의 이론에 기초하여, 기업 및 조직환경에서 개인적·조직적·상황적 요인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다양한 모형들을 제시해 오고 있다. 경영윤리학 분야에서의 이와 같은 노력은 정신병질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정신병질 연구의 어려움은 정신병질 집단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접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측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엔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정신병질이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차원적 구성개념이라는 경험적 증거들에 기반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표본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정신병질의 측정 및 요인구조를 밝히는데 집중해온 반면(Babiak, Neumann, & Hare, 2010; Salekin, Trobst, & Krioukova, 2001; Williams, Paulhus, & Hare, 2007) 구체적인 행동문제, 즉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뤄왔다.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정신병질 특성 및 정신병질 성향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대규모 표집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시나리오 실험 및 설문을 통한 측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병질 관련 변인과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함께 다룬 국내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tevens et al., 2012).

연구문제

정서경험의 강도와 특질불안 수준을 통해 1, 2차성 정신병질이 구분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Falkenbach, Poythress, & Creevy, 2008; Hundt et al., 2008; McHoskey et al., 1998), 도덕적 정서경험에서도

www.kci.go.kr

두 정신병질 간의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1차성 정신병질의 비정서성과 낮은 특질불안 수준은 제한되거나 무감각한 도덕적 정서경험과 관련될 것이다. 이는 1차성 정신병질이 도덕적 정서경험에 따른 자기처벌 없이도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의 정서적 과민성과 높은 특질불안 수준은 과민한 정서경험을 예상케 하는데, 이는 정신병질 관련 문헌들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덕적 정서의 결여'와는 다른 것이다(Millon, Grossman, Millon, Meagher, & Ramnath, 2004). 따라서, 2차성 정신병질이 비윤리적 행동에 관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차성 정신병질과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 정신병질 모두에게서 예상되는 도덕적 이탈의 효과가 2차성 정신병질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예상들을 검증함으로써 두 정신병질이 어떤 심리적 과정을 통해 비윤리적 행동에 이르게 되는가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 선정 및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표본에 기반한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주목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을 통해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정서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려운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도덕적 이탈을 거쳐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Figure 1에 제시된 연구모형 및 아래 가설들을 통해 요약해 볼 수 있다.

가설 1.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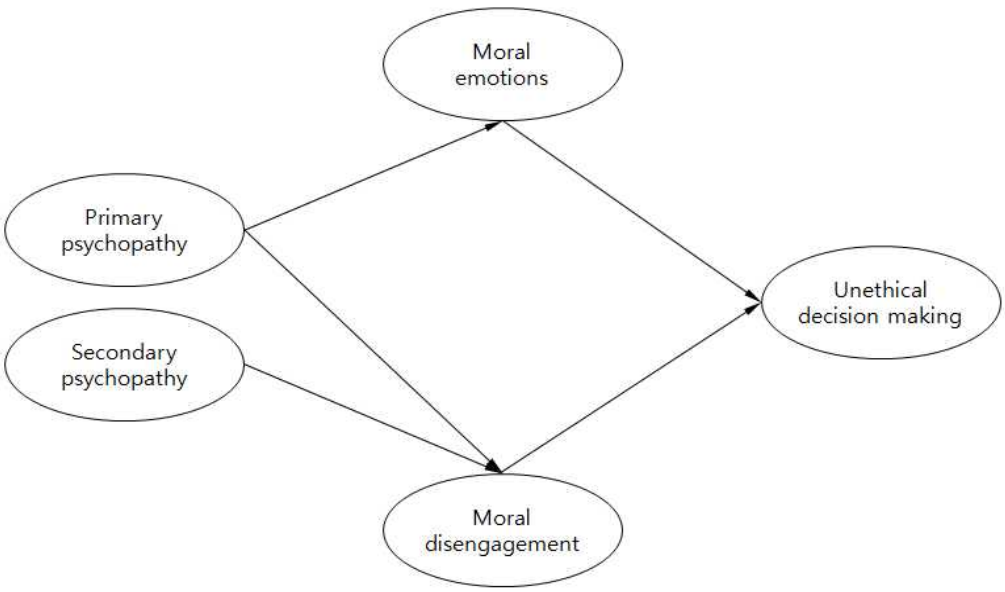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www.kci.go.kr

가설 2.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3.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소재 C대학교 재학생 66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작성된 15부를 제외하고 총 64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1세(남=21.5, 여=20.9)로 남자 대학생 224명, 여자 대학생 423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측정도구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LSRP)는 비재소자 집단의 정신병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Levenson, Kiehl과 Fitzpatrick(1995)이 제작한 것을 Lee와 Gong(2007)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국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1차성 정신병질 요인과 2차성 정신병질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25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77, 1차성 정신병질 요인 .74, 2차성 정신병질 요인 .61로 나타났다.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

Bandura(1991)가 작성한 도덕적 이탈 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는 최초 아동용으로 제작되었으나, Detert, Treviño와 Sweitzer(2008)가 이를 성인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tert 등(2008)의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한 후 사용했는데, 다음과 같은 타당화 절차를 거쳤다.

우선, 원저자로부터 국내 타당화 작업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들이 1차 번안하고 2인의 임상심리전문가가 교차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P대학교에 재직 중인 또 다른 연구자가 번안 내용이 원척도와 차이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수도권과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2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00부의 자료를 회수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의 8요인을 도덕적 이탈이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 다시 3요인으로 구분한 3요인 위계모형이 경쟁모형들보다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f=453, TLI=.840, CFI=.854, RMSEA=.055). 전체 32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의 타당화가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79, 비난 받을 행동 .60, 위해한 효과 .65, 희생자 .72로 나타났다.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

Tyszka와 Zaleskiewicz(2012)는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도덕적 정서를 측정할 목적으로 4개의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도덕적 정서를 측정할 목적으로 Youn(2014)이 우리말로 번

www.kci.go.kr

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에 포함된 4개의 시나리오들은 모두 등장인물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도덕 규범을 위반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1].

응답자들은 자신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이라 가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될 도덕적 정서들을 얼마나 크게 느낄 것인가를 예상하여 평정하게 된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수치심・죄책감・당혹감을 모두 평정하게 되는데, 0점(전혀 느끼지 않는다)부터 100점(완전히 압도될 것이다)까지의 범위 내에서 5점 단위로 평정하게 된다. 도덕적 정서를 강하게 자극하는 내용의 2개 시나리오와 약하게 자극하는 내용의 2개 시나리오가 각기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과 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전체 .86,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 .77, 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 .74로 나타났다.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

Detert 등(2008)은 대학생들의 비윤리적 행동 경향성을 측정할 목적으로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Unethical Decision Making Scale)를 제작하여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Youn(2014)이 우리말로 번안한 후 국내 문화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총 8개의 시나리오들로 구성되어 있다[2]. 응답자들은 각각의 시나리오들을 읽고 본인이 시나리오 상의 인물이라면, 그 인물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된다. 전체 8개 문항의 단일요인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경로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고,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AMOS 20.0과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정신병질 특성,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비윤리적 의사결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1) 예: "인물 A는 해고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로서, 큰 빚을 지고 있으며 대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A는 거리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안에는 상당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다. 그 지갑엔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으나, A는 주인에게 지갑을 되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갖기로 결정했다"

2) 예: "당신은 대학교 내 행정부서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다. 당신은 사무실에서 혼자 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집에 복사용지가 모두 떨어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당신은 가방 속으로 복사용지 묶음을 슬쩍 밀어 넣었다"

www.kci.go.kr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Sub-factors	M (SD)
Psychopathic traits	Primary	34.63 (5.48)
	Secondary	22.01 (3.49)
	Total	56.64 (7.54)
Moral disengagement	Reprehensible conduct	2.46 (0.36)
	Detrimental effect	2.32 (0.38)
	Victim	2.47 (0.58)
	Total	2.41 (0.32)
Moral emotions	Strong	61.05(17.89)
	Weak	71.24(17.19)
	Total	66.14(16.38)
Unethical decision making		3.13 (0.93)

각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도덕적 정서 및 그 하위 요인들인 약한 도덕적 정서와 강한 도덕적 정서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반면, 도덕적 정서 및 그 하위 요인들인 약한 도덕적 정서와 강한 도덕적 정서 상호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으나, 이외의 모든 주요 변인들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표준화 계수를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3.348(df=13, p=.421), TLI=.999, CFI=1.000, RMSEA=.00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검증을 통해 산출된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경로계수를 Table 6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www.kci.go.kr

Table 3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1	1-1	1-2	2	2-1	2-2	2-3	3	3-1	3-2
1	Psychopathic traits										
1-1	Primary	.90**									
1-2	Secondary	.74**	.39**								
2	Moral disengagement	.41**	.40**	.25**							
2-1	Reprehensible conduct	.37**	.36**	.23**	.77**						
2-2	Detrimental effect	.30**	.31**	.18**	.77**	.43**					
2-3	Victim	.25**	.25**	.15**	.73**	.33**	.31**				
3	Moral emotions	-.34**	-.37**	-.14**	-.24**	-.21**	-.22**	-.11**			
3-1	Weak	-.32**	-.36**	-.13**	-.22**	-.21**	-.18**	-.10**	.94**		
3-2	Strong	-.30**	-.33**	-.14**	-.22**	-.19**	-.23**	-.09*	.93**	.74**	
4	Unethical decision making	.41**	.44**	.20**	.37**	.34**	.31**	.18**	-.34**	-.32**	-.31**

*p < .05. **p < .01.

Table 4

Model Fit of Measurement Model

	χ^2	*df*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13.348	13	.999	1.000	.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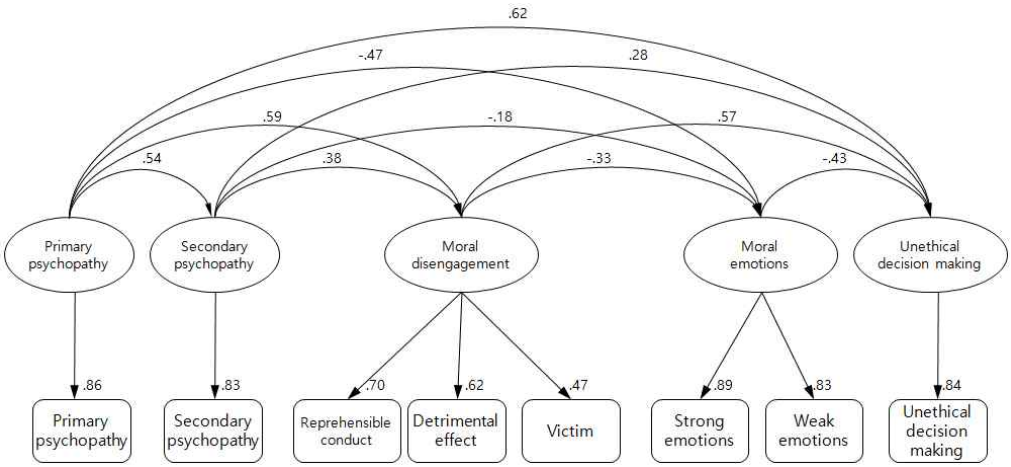

Figur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www.kci.go.kr

Table 5
Model Fit of Research Model

	X^2	*df*	TLI	CFI	RMSEA
Research model	21.095	14	.989	.994	.028

Table 6
Path Estimate of Research Model

Path of variables	*B*	*β*	*S.E*	*t*
Primary → Unethical decision making	0.04	.26	.01	4.44^{***}
Primary → Moral emotions	-1.07	-.41	.12	-8.62^{***}
Primary → Moral disengagement	0.02	.46	.01	7.30^{***}
Secondary → Unethical decision making	-0.01	-.01	.01	-0.30
Secondary → Moral emotions	0.03	.01	.18	0.19
Secondary → Moral disengagement	0.01	.14	.01	2.78^{**}
Moral emotions → Unethical decision making	-0.01	-.23	.01	-4.73^{***}
Moral disengagement → Unethical decision making	1.06	.37	.21	5.16^{***}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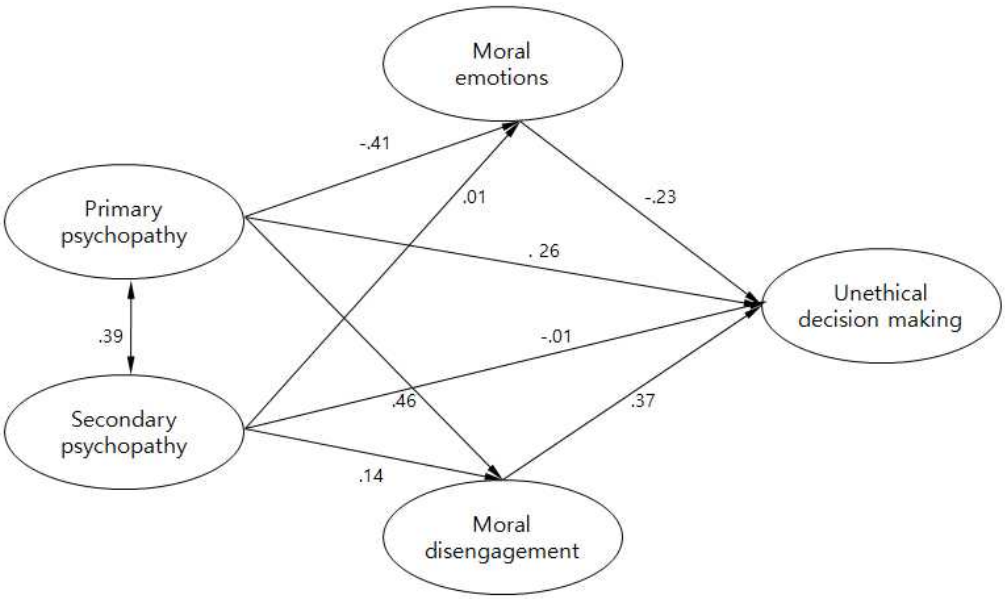

Figure 3. Path estimate of research model

www.kci.go.kr

21.095(df=14, p=.099), TLI=.989, CFI=.994, RMSEA=.02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적절히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에 따른 경로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즉,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는데,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26, p<.001. 또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반면, β=.46, p<.001, 도덕적 정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1, p<.001.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비윤리적 의사결정, β=-.01, *ns.,* 및 도덕적 정서에 대한 직접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β=.01, *ns.*,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14, p<.01. 이밖에, 도덕적 정서가 증가할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감소하였으며, β=-.23, p<.001, 도덕적 이탈이 증가할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7, p<.001.

연구모형의 간접효과

연구모형에서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1차성 정신병질 특성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35, .19}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26, p<.001. 또한,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 Z=3.87, p<.001, 및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 Z=4.28,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성 정신병질 특성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경로의 경우, 95% 신뢰구간이 {.10, .01}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05, p<.05. 그러나

Table 7
Indirect Effect of Moral Emotions and Moral Disengagement on Primary-Secondary Psychopathic Trait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Path	Indirect effect	95% Confidence interval	
		Upper	Lower
→ Moral emotions Primary → Unethical decision making → Moral disengagement	.26***	.35	.19
→ Moral emotions Secondary → Unethical decision making → Moral disengagement	.05*	.10	.01

*p < .05. ***p < .001.

www.kci.go.kr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는 유의했으나, Z=2.427, p<.05,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183, *ns.*.

논 의

본 연구에서는 1, 2차성 정신병질이 비윤리적 행동에 이르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모형검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1, 2차성 정신병질의 이질적인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경로들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 경로모형이다. 모형검증 결과, 적절한 모형적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경로부터 살펴보면,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2차성 정신병질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비윤리적 의사결정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나,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1차성 정신병질은 유전적 소인이 우세하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또한, 치료가 어려우며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대담하고 계획된 반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진다. 이와 달리, 2차성 정신병질은 환경적 소인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치료 순응을 보이고, 불쾌한 사회적 자극에 반응한 충동성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Gertsley, Alteman, McLellan, & Woody, 1990; Skeem & Mulvey, 2001; Skeem, Poythress, Edens, Lilienfeld, & Cale, 2003).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는 비윤리적 행동에 있어서 1차성 정신병질이 갖는 선천성 및 도구적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이 갖는 후천성 및 반응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간접경로를 살펴보면,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은 각기 부적, 정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정서가 매개할 것이다',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도덕적 정서 경험의 부족은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을 자주 경험하며, 도덕적 이탈이 빈번할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1차성 정신병질은 도덕적 정서에 무감각하거나, 도덕적 정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도덕적 이탈을 통해 자기처벌을 피함으로써 비윤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www.kci.go.kr

설명할 수 있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도덕적 정서의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도덕적 이탈이 완전매개하는 간접효과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도덕적 이탈이 매개할 것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높을수록 도덕적 이탈을 자주 경험하며 도덕적 이탈이 빈번할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2차성 정신병질의 비윤리적 행동은 정서경험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이탈에 따른 인지적 왜곡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한 결과들은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모든 직·간접 경로가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만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간접효과를 자세히 이해해보고자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의 각 하위 요인별로 추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도덕적 정서의 경우, 강한 도덕적 정서 요인·약한 도덕적 정서 요인별로 경로분석을 해보았다. 또한, 도덕적 이탈은 비난받을 행동 요인·위해한 효과 요인·희생자 요인별로 경로분석한 후, 각 모형들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추가분석 된 모든 모형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 및 도덕적 정서의 각 하위요인별 간접효과는 연구모형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이탈의 각 하위요인별 간접효과는 연구모형에서의 결과와 상이하였다. 즉,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경우, 도덕적 이탈 중 비난 받을 행동·위해한 효과 요인의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은 도덕적 이탈 중 비난받을 행동 요인에서만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차성 정신병질 특성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서만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의 인지적 왜곡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위해한 효과나 희생자 귀인보다는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집중됨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정신병질의 치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선행연구들(Hare, 1993; Kwak & Kim, 2008; Vitale, Newman, Goodnight, Dodge, & Petti, 2005)과는 다른 의견을 제기해 볼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정신병질의 치료는 1차성인지 2차성인지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1차성 정신병질의 치료가능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edfeld & Landon, 1978; Wong & Hare, 2003). 심지어 Mealey(1995)는 치료적 개입을 포기하고 이들의 속이기 행동을 탐지·관리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강화하는 게 최선이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2차성 정신병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치료적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2차성 정신병질이 1차성 정신병질과 달리 도덕적 정서경험의 문제와 무관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차성 정신병질은 경계선 성격과 상당한 중첩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Meloy, 1988; Meloy & Gacono, 1993), 이들의 비윤리적 행동에 우울·불안 등의 정서장해가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Skeem, Johansson, Andershed, Kerr, & Louden,

www.kci.go.kr

2007). 따라서, 2차성 정신병질의 경우 도덕적 정서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정서적 불안정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추가분석을 통해 2차성 정신병질의 도덕적 이탈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인지적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1, 2차성 정신병질의 도덕적 이탈에 기저하고 있는 가치관 등의 신념체계를 확인하고 개입함으로써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두 정신병질의 인지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도덕적 판단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병질의 비윤리적 행동과 관련한 심리적 특성 및 과정을 새롭게 제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정신병질을 동질집단으로 다루지 않고 1차성과 2차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정신병질의 치료가능성에 대한 재고와 함께 차별적인 치료적 전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정신병질 연구가 갖고 있었던 접근과 측정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질과 비윤리적 행동의 대안적 구성개념으로서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정신병질 특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행동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정신병질 특성이 높은 정신병질 성향자 및 정신병질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정신병질 성향자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표집한 통제된 실험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포함된 참여자들은 남성 224명, 여성 423명으로 여성 표본의 수가 우세하다. 그러나 여러 역학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반사회성 성격장애 및 정신병질의 유병률은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한 모형간 비교를 통해 성별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성 집단의 모형적합도가 신뢰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한된 남성 표본수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비를 고려한 표본집단 구성을 통해 성별 효과에 대한 함의를 제언할 수 있어야 하겠다.

References

Babiak, P., Neumann, C. S., & Hare, R. D. (2010). Corporate psychopathy: Taking the walk.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28,* 174-193.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Vol. 1, pp. 71-129),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Bandura, A. (1999). Moral disengagement in the

www.kci.go.kr

preparation of in humanities.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 193-209.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64-374.

Blackburn, R. (1996). Psychopathy and personality disorder: Implication of interpersonal theory. *Issues in Criminological and Legal Psychology, 24,* 18-23.

Detert, J. R., Treviño, L. K., & Sweitzer, V. L. (2008). Moral disengagement in ethical decision making: A study of antecedents and outco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 374-391.

Edens, J. F., Buffington-Vollum, J. K., Colwell, K. W., Johnson, D. W., & Johnson, J. (2002). Psychopathy and institutional misbehavior among incarcerated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and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1,* 49-58.

Ermer, E., & Kiehl, K. A. (2010). Psychopaths are impaired in social exchange and precautionary reasoning. *Psychological Science. 21,* 1399-1405.

Falkenbach, D., Poythress, N., & Creevy, C. (2008). The exploration of subclinical psychopathic subtyp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ypes of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821-832.

Gertsley, L., Alteman, A., McLellan, A., & Woody, G. (1990).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n patients with substance abuse disorders: a problematic diagnosi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 173-178.

Gini, G., Pozzoli, T., & Hauser, M. (2011). Bullies have enhanced moral competence to judge relative to victims, but lack moral compa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603-608.

Gini, G., Pozzoli, T., & Bussey, K. (2015). Moral Disengagement moderates the link between psychopathic traits and aggressive behavior among early adolescents. *Merrill - palmer Quarterly, 61,* 51-67.

Greene, J. D. (2007). Why are VMPFC patients more utilitarian? a dual-process theory of moral judgment explain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 322-323.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s.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Manual.* Toronto: Multi-Health Systems.

Hare, R. D. (1993). *Without conscience: The disturbing world of the psychopaths among us.* New York, NY: Simon & Schuster(pocket books). Paperback published in 1995. Reissued in 1999 by Guilford Press.

Hicks, B. M., Markon, K. E., Patrick, C. J., Krueger, R. F., & Newman, J. P. (2004). Identifying psychopathy subtypes on the basis of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16,* 276 – 288

Hundt, N. E., Kimbrel, N. A., Mitchell, J. T., & Nelson-Gray, R. O. (2008). High BAS, but

www.kci.go.kr

not low BIS, predicts externalizing symptoms in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565-575.

Hyde, L. W., Shaw, D. S., & Moilanen, K. L. (2010). Developmental precursors of moral disengagement and the role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197-209.

Jeon, C. E., & Hyun, M. H. (2003). The effects of shame, guilt, and social support on PTSD in psychological abused wome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763-776.

Jones, T. M. (1991). Ethical decision 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 366-395.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Kim, T. H. (2013). A study in the characteristics and kinds of moral emotions.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38,* 81-98.

Koenigs, M., Kruepke, M., Zeier, J., & Newman, J. P. (2012). Utilitarian moral judgment in psychopathy.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7,* 708-714.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A.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Kosson, D., & Newman, J. (1995). An evaluation of Mealey's hypotheses based on psychopathy checklist identified group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8,* 562-563.

Koven, N. S. (2011). Specificity of meta-emotion effects on moral decision-making. *Emotion, 11,* 1255-1261.

Kroll, J., & Egan, E. (2004). Psychiatry, moral worry and moral emotions. *Journal of Psychiatric Practice, 10,* 352-360.

Kwak, K. J., & Kim, Y. S. (2008). A review on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y: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 71-89.

Lee, S. J., & Gong, J. K. (2007). Characteristic analysis of domestic homicidal behavior based on psychopath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3,* 1-23.

Levenson, M. R., Kiehl, K. A., & Fitzpatrick, C. M. (1995). Assessing psychopathic attributes in a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 151-158.

Link, N. F., Scherer, S. E., & Byrne, P. N. (1977). Moral judgement and moral conduct in the psychopa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22,* 341-346.

Lykken, D. T. (1995). *The antisocial personalities.* New Jersey: Erlbaum.

McHoskey, J., Worzel., W., & Szyarto, C. (1998). Machiavellianism and psycho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92-210.

Mealey, L. (1995). The sociobiology of sociopathy: An integrated evolutionary model.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9,* 523-540.

Meloy, J. (1988). *The Psychopathic mind: Origins, dynamics, and treatment*, New Jersey: Jason Aronson.

Meloy, J., & Gacono, C. (1993). A borderline psychopath: "I was basically maladjusted".

www.kci.go.kr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358-373.

Miller, R. S. (1996). *Embarrassment: Poise and peril in everyday life.* New York: Guilford.

Millon, T., Grossman, S., Millon, C., Meagher, S., & Ramnath, R. (2004). *Personality disorders in modern life(2nd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Morey, L. C. (1991).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Park, J. S., Hyun, M. H., & You, J. M. (2010). A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 and juvenile psychopathic behavior feat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 945-967.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Reynolds, S. J. (2006). A Neurocognitive model of the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 Implications for study and practi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 737-748.

Ryu, K., & Min, K. H. (2002).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s: shame and guilt. *Psychological Science, 11,* 53-69.

Salekin, R. T., Trobst, K. K., & Krioukova, M. (2001). Construct validity of psychopathy in a community sample: A nomological net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425-441.

Shim, J. O., & Lee, Y. H. (2000). The effects of shame-proneness, guilt-proneness and event attribution on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485-499,

Skeem, J. L., Poythress, N., Edens, J. F., Lilienfeld, S. O., & Cale, E. M.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 513-546.

Skeem, J., & Mulvey, E. (2001). Psychopathy and community violence among civil psychiatric patients: results from the MacArthur Violence Risk Assessment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358-374.

Skeem, J., Johansson, P., Andershed, H., Kerr, M., & Louden, J. (2007). Two subtypes of psychopathic violent offenders that parallel primary and secondary varia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395-409.

Stevens, G. W., Deuling, J. K., & Armenakis, A. A. (2012). Successful Psychopaths: Are they unethical decision-makers and wh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5,* 139-149.

Struch, N., & Schwartz, S. H. (1989). Intergroup aggression: Its predictors and distinctness from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64-373.

Suedfeld, P., & Landon, P. (1978). Approaches to treatment. In R. Hare, & D. Schalling (Eds.), *Psychopathic behaviour: Approaches to research.* London: Wiley.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8-607.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www.kci.go.kr

(2007). Moral emotion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Tyszka, T., & Zalesiewicz, T. (2012). The strength of emotions in moral judgment and decision-making under risk.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43,* 132-144.

Vitale, J. E., Neuman, J. P., Bates, J. E., Goodnight, J., Dodge, K. A., & Petti, G. S. (2005). Deficient behavioral inhibition and anomalous selective attention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with psychopathic traits and low-anxiety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 461-470.

Williams, K. M., Paulhus, D. L., & Hare, R. D. (2007). Capturing the four-factor structure of psychopathy in college students via self-re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8,* 205-219.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Wong, S., & Hare, R. (2003). *Program guidelines for the institutional treatment of violent psychopathic offenders.* Toronto: Multi-Health Systems.

Youn, H. (2014). *Study on unethical decision making of people with psychopathic tendency: Focused on moral emotion and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Received February 11, 2015
Revised January 29, 2016
Accepted February 16, 2016

www.kci.go.k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6, Vol. 35, No. 2, 453-472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

윤 황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이 상호 이질적인 장애임을 제언하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비윤리적 행동에 이르는 1차성 정신병질과 2차성 정신병질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64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SRP) 및 한국판 성인용 도덕적 이탈 척도, 도덕적 정서 시나리오 척도, 비윤리적 의사결정 척도를 실시하였다. 1,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이들 간의 직·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비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의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1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이탈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2차성 정신병질 특성과 비윤리적 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는 도덕적 이탈의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임상적 함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1차성 정신병질, 2차성 정신병질, 도덕적 정서, 도덕적 이탈, 비윤리적 의사결정

www.kci.go.kr